

# 국제교류 네트워크 '강화'

### 자치인재원,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운영... 신남방국가 포함 9개 나라 참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 이하 자치인재원)은 개도국 지방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지방행정, 굿거버넌스를 주제로 17일부터 2주간 2019 개발도상국 지방행정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국가를 포함하여 9개 나라에서 16명의 지방공무원이 참여하며, 지방행정, 굿거버넌스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 한국 지방정부 혁신사례 공유, 전통문화체험, 산업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아세안과 인도를 주변 4강(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외교관계를 강화하여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국내 지자체와 자매결연(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개발도상국 도시 중에서 신남방·신북방지역의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여 국제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된다.

한편, 개도국 지방행정과정 연수생들은 2019 LOGODI 글로벌포럼에 참여해 정부정책과 공무원 교육훈련의 관계,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생 등과 함께 축담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개도국 지방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지방행정, 굿거버넌스를 주제로 17일부터 2주간 2019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을 운영한다.

연수생들은 대구광역시(전국 최초 민원·공모 홀서비스), 부산광역시 진구(윈스톱 셀프 등기), 경기도 고양시(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스마트 슈즈 상용화), 전라남도 순천시(복합적 도시재생 우수사례)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지방혁신사례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특히, 연수기간 중에 1박 2일의 지자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연수생들은 자매결연도시의 단체장을 접견하고 주요사업 현황을 청취하며

지자체와 교류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게 된다.

한편 개도국 공무원들은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서초구청 통합 관제센터와 민원실을 방문하여 방법, 주장차, 재난관리, 민원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박재민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연수 과정이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밑거름이 되고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이 개발도상국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 북미 물밑 대화 다시 이뤄져... 머잖아 수면 위 대화도 재개

### 이 총리 "南北, 연내 비핵화 진전 위해... 좋은 변화 생길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올해 2월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교착됐지만 물밑 대화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한 뒤 "머지않아 수면 위의 대화도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들은 모두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연내에 이뤄질지 희망한다고 저는

판단한다"며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 민족은 분단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며 "6·25 전쟁은 300만명의 희생자와 1000만명의 이산가족을 낳았고, 강도를 폐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로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따른 인명피해가 이어졌다"며 "우리는 대결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민족 대화해와 함께 국민 대화합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 서투르다. 동과 서, 보수와 진보, 부자와 빈자, 노인과 청년, 여자와 남자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극단의 주장이 충돌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거친 말로 매도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늪을 뜰 수 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 도,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 위한 미꾸라지 종자 방류

전북도는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량을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미꾸라지 우량종자를 방류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량의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

여하고자 17일 민물고기시험장에서 자체 생산한 미꾸라지 종자 54만 마리를 2개 하천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미꾸라지 종자는 산란기인 3~5월에 어미 확보 후, 자체 기술력으로 인공 종자 생산한 4cm 이상의 건강한 종자로, 지역 특성에 맞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도내 내수면 생태계 자원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우량 종자 방류 및 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량 종자의 지속적인 방류와 양식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 6급 근속승진 공무원 늘어난다

###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1년 이상 재직 근속승진 7급→6급 40%로 확대... 10%P↑ 소극행정·음주측정 거부면 6개월 승급제한 감당 각오해야

11년 이상 재직하 7급 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이 늘어나게 된다. 소극행정을 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공무원들은 6개월 승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7급의 인사 체계를 해소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가능 인원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근속승진은 7급·8급·9급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채우면 승진시켜

주는 제도다. 7급이 6급이 되려면 11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데, 그간 기관·직렬별로 11년 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에 한해서만 근속승진을 허용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2년 20%에서 2016년 30%로 근속승진 인원이 확대된 데 이어 3년 만에 또 근속연수를 채운 공무원들이 승진에 더 유리하게 지게 된다. 다만 근속 연수를 기반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성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데다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 혈세로 공무원 승진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

무원 선발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필수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한 경우'를 포함시킨다.

임무 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특진) 중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특진 요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반면 공직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행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승진 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러 보직관리 기준 중 '공무원의 인적 요건'에 성과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진출 제한 기간을 '최초 임용일부터 3년'으로 두기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시스



군산시가 '제7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 K-Festival 2019'에서 마케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 홍보 마케팅 성과를 이뤄냈다.

# 군산시간여행축제, K-Festival 마케팅부문 최우수상 수상

군산시가 '제7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 K-Festival 2019'에서 마케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 홍보 마케팅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50여 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이 참가해 진행됐으며 군산시는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군산만의 관광축제의 특징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군

산의 매력적인 관광자원도 함께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박람회 3일 동안 무대 공연을 통해 시간여행축제 관련 퀴즈 등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25일에는 '시간여행축제 서포터즈'가 무대공연 등을 선보여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총 450여 기관·단체 중 8개 부문 16개 기관 및 단체가 수상한 가운데, 군산시가 마케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군산 축제의 차별화와 우수성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혁신

적이고 우수한 축제 콘텐츠로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황관선 관광진흥과장은 "마케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군산시간여행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여행축제의 성장 가능성이 입증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발굴,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